‘대행선·불교학 진흥’ 最大 학술상 제정

대행선연구원, ‘묘공학술상’ 제정 · 〈한마음연구〉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상이 제정된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학술상’ 제정과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 발간 등의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한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학술상은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의 역사 · 사상 · 수행 · 포교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학 · 선학 전반에 관련한 학술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과정 수료 이상과 제방의 선학 · 불교학 전문가라면 응모 가능하다.

‘묘공학술상’은 불교학계 최대 규모의 학술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2명에게는 각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기 때문이다. 올해 대상 수상 논문은 내년 7월 발표되며,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된다. 우수상 논문들도 수정 · 보완 후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묘공학술상’이 박사학위와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한마음연구〉 논문투고’는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신진학자들까지 저변을 넓힌 학술연구 진흥사업이다.

한마음사상 학술적 기반 마련
연구 통한 대행선 전법 추진
전문 연구자 양성 효과 기대

대행선 · 불교학 전반 응모 가능
대상 1천만원 학계 최대 규모
석 · 박사 연구논문 지원 사업도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에 출간되는 〈한마음연구〉의 논문 투고 분야는 ‘묘공학술상’과 동일하게 대행선과 불교학 전체를 관통하며, 투고 시기는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투고방법은 투고 논문을 심사 · 게재하는 기존 학술지와는 조금 상이하다. 연구계획서와 자기소개서, 투고지원서를 제출하면 연구계획서 통과자에 한해 논문 투고 예비 선정자가 결정된다.

이때 예비 선정자와 집필계약을 하며, 원고료 400만원의 25%가 지급된다. 이후 예비 선정자의 집필 논문은 중간발표와 완성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확정된다. 논문집 게재 확정시 나머지 원고료가 지급된다. 게재 논문은 저자가 희망할 경우 연구원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대행선연구원은 “‘묘공학술상’과 학술지 〈한마음연구〉 등 여러 가지 학술 진흥사업을 통해 불교 연구자 전체를 아우르는 불교학 연구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2021년까지 〈한마음연구〉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대행선 연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본격화 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행선연구원이 추진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이는 석 · 박사 학위 논문 및 연구논문 작성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인재양성 프로젝트’ 참여는 대학원 재학생이나 수료자로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학위 · 연구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은 10명 내외로 매년 3월과 9월에 이뤄지며 참가자에게는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소정의 발표비와 학술 지원비, 논문 작성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격월로 이뤄지는 정기 공부모임 형태로 운영되며, 참여자가 준비하고 있는 학위 · 연구논문에 대한 주제 · 초록 관련 대화 · 토론 등이 진행된다.

또한, 대행선연구원은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계절 발표회’도 추진한다. 계절발표회는 매년 3 · 6 · 9 · 12월에 열리며,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 논문이 각 1편 씩 발표된다. 오는 9월에는 조계종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이 대행선사 관련 발표를,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가 원효 관련 발표를 각각 진행한다. 12월에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행선연구원은 “학술연구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3대 핵심 목표인 생활불교 · 현대불교 · 세계불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련의 사업을 통해 대행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마음사상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엇갈린 친모 증언에 친자의혹 진실공방

하와이 무량사 도현 스님, 1999년 친모 녹취 공개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1999년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 친모인 김○정 씨와 나눈 대화라고 주장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서 김 씨로 지목된 여성은 “22살 때 설정 스님으로 인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친모인 김 씨가 조계종 총무원과의 인터뷰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설정 스님 친자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현 스님은 7월 24일 서울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김 씨가 무량사에 찾아와 설정 스님을 만나고 싶다며, 스님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해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도현 스님은 녹음테이프 내용을 컴퓨터파일로 변환해 CD로 배포했으며, 속기사무소를 통해 정리한 녹취록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씨로 예상되는 여성은 22세 때 차 안에서 설정 스님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두 번째 만남에서 설정 스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며, 설정 스님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자 1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현 스님에게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수십 페이지에 걸쳐 작성된 녹취록에는 이 여성이 10여 년간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담겼다.

도현 스님은 “김 씨는 당시 암 치료차 미국에 있던 설정 스님을 찾고자 무량사에 왔다. 녹음 여부는 김 씨도 몰랐으며 이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설조 스님의 단식이 길어지고,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녹취를 공개하게 됐다. 설정 스님은 결단을 내려주시고, 설조 스님도 생명을 위해 단식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 24일 조계사 옆 우정공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한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조계종 총무원 인터뷰서 “경북의 모 사찰서 거사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도현 스님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 씨는 지난 5월 진실을 밝히는 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1999년 당시 스스로가 심신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당시 진정과 소송 등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밝히며 참회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대중에게 공개됐다”며 “도현 스님은 20년 전 어떤 의도로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는지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허위라고 밝힌 내용을 새로운 것처럼 이제야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 도현 스님과 배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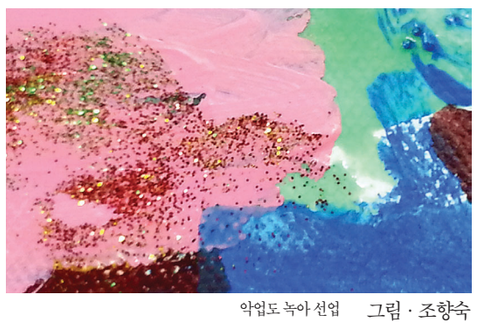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신구의 삼업 몸 · 입 · 뜻으로 짓는 업

노회찬 국회의원이 삶을 마감하던 날, 어느 택시 기사는 “그게(돈) 뭐길래”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노 의원이 오랫동안 단골로 다닌 아주 허름한 이발소 주인도 미국가기 전날 다녀갔다며 애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의 회전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의지적 행위를 업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받는 필연적 결과를 업보(業報)라고 합니다. 업과 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 선업에는 착한 보(善報)가 따르고 악업에는 괴로운 보(惡報)가 따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이라고 합니다. 삼업을 세분한 것이 10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보다 악업을 익혀온 중생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10악업부터 설명하십니다.


악업도 녹아 선업 그림 · 조향숙

신구의 삼업의 근본 ‘意業’
탐진치에서 10악업 나와
6바라밀 계정혜로 단속

10악업은 감각기관 6근에 탐진치 삼독이 들어와 일으키는 중생의 업입니다. 10악을 범치 않는 것이 10선업입니다.

신업(身業):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으로 살생, 도둑질, 사음입니다. 몸 3(身三)업은 5계의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계로 브레이크를 걸어 통제할 수 있습니다. 8정도의 정업과 정명, 7각지 수행도 신업을 제어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단속해 선업을 닦으면 살생은 방생으로, 도둑질은 보시로, 사음은 지계로 바뀝니다.

구업(口業): 거짓말(妄語), 속이는 말(綺語), 이간질하는 말(兩語), 나쁜말(惡口)입니다.

5계의 불망어계와 8정도의 정어로 4가지 구업을 다스리면 이웃에게 사랑의 말, 진실한 말, 유익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의업(意業): 뜻으로 짓는 3가지 업으로 탐욕(貪慾), 성냄(瞋恚 진에), 어리석음(痴暗 치암)입니다.

줄여서 탐진치라고 하며, 삼독이라 불리는 ‘업 덩어리’입니다.

탐욕은 재물, 성, 명예를 탐내어 집착하는 욕심입니다. 6바라밀의 보시와 지계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진에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인욕과 정진 삼매로 극복해 보세요.

치심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못 보는 어리석음의 업으로 무명이며 무지입니다. 업은 마음(뜻)에서 생겨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업은 신구의 삼업의 근본이 됩니다.

즉 모든 악업은 탐진치에서 시작됩니다. 무아와 무상을 보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유신견(有身見)과 탐진치를 녹이게 됩니다.

*신구의 삼업은 중생심이 몸과 입과 뜻으로 나오는 10악업입니다. 부처님의 신구의는 자비의 모든 것 10선업입니다. 10악업을 10선업으로 돌리려면 6바라밀 수행과 계정혜 삼학으로 정진하여 선업이 익어야 합니다. 중생심 송곳이 주머니에 있어 안 보여도 여름에 가습기로 습기를 제거하듯 6바라밀로 다스려야 합니다.

보살의 계위를 한 계단씩 올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법운지에 들때까지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신구의 삼업을 들여다보고 소통합시다.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 할 수 있는 답입니다. 자비의 방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비움의 방석에 앉아서 보살행을 합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공모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한마음연구』**를 발행합니다.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본격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불교학과 관련하여 뜻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응모 자격 :** 박사과정 수료 이상 / 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선정 분야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대상 논문의 경우『**한마음연구**』논문집에 게재. 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수정 보완 후에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논문집에 게재
- 대상 및 우수상을 받지 못했지만 우수한 논문의 경우, 별도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원고료 400만원 지급]

☞ 묘공학술상과 관련하여 심사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

- **투고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투고 시기 :** 년 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한마음연구』출간 일정 [2월 28일, 8월 31일]에 따라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일자를 결정
- **투고 자격 :** 불교관련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자 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
-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계절발표회

- **발표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시행 :** 1년에 4회, 매 3, 6, 9, 12월의 3번째 일요일 전 금요일 오후 1시~5시
- **장소 :** 한마음 선원 안양 본원
- **초빙 대상 :**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자/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발표 방법 :** 매 발표회당 2명의 연구자가 논문[초고 가능]을 발표 대행선 관련 논문과 불교학 관련 논문 각 1편 씩 발표
- **원고료 :** 400만원
-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 보다 자세한 것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인재양성 프로젝트

- **대상 :**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및 수료자로 대행선 혹은 불교와 관련하여 학위논문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운영 :** 정기 공부모임[격월 4째 주 토요일], 멘토 시스템
  ☞ 학위 및 연구 논문 주제/초록 발표와 토론, 높은 완성도를 위한 방향의 제시
  ☞ 1년에 6회 [1, 3, 5, 7, 9, 11월 4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선발 시기 :** 매년 3월, 9월 [년 2회]를 원칙으로 함
- **인원 :** 10명 내외
- **특전 :** 참가자에게 학술지원비, 세미나 발표비, 학위논문 작성 지원비 지원

☞ 보다 자세한 것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주소 :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 전화 : 031)470-3276, 3277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 www.daehaeng.org

※ 모든 서류는 E-mail로만 받음